

트럼프와 바이든, 존 맥아더와 웨인 그루뎀 목사의 선택

성경말씀: 뵤전5:8-9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와 바이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잘 지켜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까에 관심,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좋은 사람이다.

선거 결과 아직 누가 당선되었는지 모르지만 객관적 통계로는 바이든이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 가능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편 부정 선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름

많은 사례들이 수집되고 있고 SNS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부정선거 조사 백악관 청원도 올라옴 아마 트럼프는 이기든 지든 부정 선거 문제를 확실하게 짚을 것이다.

이상한 점: 우리도 4.15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 그런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우편 투표, 사전 투표지가 막판에 등장하면서 수십 군데에서 결과가 뒤바뀜.

우리나라도 4.15 총선, 관외 사전투표 등기 2,724,653개 전수 조사 결과

[4.15 부정선거의혹] 우편투표 전산조작 혐의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등 피소

그래서 9월 23일, 국민투쟁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우정사업 본부장(우체국)을 함께 부정선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였다.

국투본의 박주현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국투본과 국민수사대는 최근 2,725,843표에 달하는 관외사전 투표를 우체국 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시스템서 등기우편 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배송경유지, 배송시간, 받는분/수신날짜, 미배달/배달여부, 배달결과, 집배원, 수신인 등 전수조사하여 1,100,672표에 대해 심각한 위조와 조작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라고 밝히면서 4.15총선의 우편투표에서 발생한 부정의혹 정황을 열거했다.

출처: 파이낸스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344>)

우리나라 선진든 미국 선거든 앞으로 사전 선거, 우편 선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극심한 분열, 국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뵤전5:8-9

이제 두 나라 모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우리 아이들이 다 미국에 살고 있다. 아이들 사촌들도 다 미국에 살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아이들에게도 매우 큰 이슈, 사촌들끼리 서로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등 의논하며 열기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는 가운데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시민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트럼프와 바이든, 존 파이퍼와 웨인 그루뎀 목사의 선택

제목: 트럼프를 지지하는 내가 내 친구 존 파이퍼에게 존경심과 함께 보내는 편지(A respectful response to my friend John Piper about voting for Trump)

파이퍼와 그루뎀은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주의자들

파이퍼는 침례교 칼빈주의자(1946년생), 그루뎀은 장로교 칼빈주의자(1948년생)

책들을 같이 저술하고 친한 사이, 미네아폴리스, 피닉스

그루뎀, 조직신학, 성경과 정치 등 석학

이 두 사람의 편지, 글, 크리스천의 태도 등 배울 것이 많아 소개한다.

파이퍼는 지난 40년 동안 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경적인 강해, 희생하며 사는 것 등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제게 늘 도전을 주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할 때면 거의 모든 시간이 제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아마 그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그가 말하거나 기록한 것의 98%를 내가 믿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2020년 대선에 관한 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파이퍼는 10월 22일 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해도 잘못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그는 두 사람에 대한 투표를 포기하였습니다. 바이든은 낙태 지지, 난잡한 성교 허용(섹스 스와핑), 사회주의 지지, 트럼프는 과거의 성적 타락 회개하지 않음, 회개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 등 문제가 있다. 이제 나는 왜 그와 다른 결론에 이르렀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나는 며칠 전에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먼저 저는 파이퍼의 견해를 요약하겠습니다.

1. 한 개인의 죄들은 악한 법규들처럼 개인과 국가에 유해하다.
2. 그리스도인들이 정책과 법규들이 개인의 성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행동하면 잘못된 것을 전달하게 된다.
3.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는 다른 죄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 예를 들어 낙태 지지 등. 그러므로 교만한 자를 뽑는 것은 간접적으로 낙태를 지지하는 것이다.
4. 그러므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이 둘을 뽑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하는 것이다.

끝으로 파이퍼는 “이 문제에 대해 나와 달리 생각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였다.

이제 나는 왜 내가 파이어와 달리 생각하는지 내 의견을 진술할 것이다.

1. 개인의 죄들은 악한 법규들처럼 개인과 국가에 유해하다는 것에 대하여

파이퍼의 주장: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 저속한 것, 파당을 짓는 것 등이 국가에 단지 유해할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반면에 낙태, 섹스 스와핑, 자유 억제, 사회주의 정책 등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죄들은 다 신약 성경이 사람을 멸하는 죄라고 명백히 규정한 것들이다. 치명적인 것들이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죄들을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이다. 이런 죄들은 국가를 망치는 죄이며 전체 문화를 오염시키는 죄이다.

왕상14:16, 여로보암, 그분께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가 죄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트럼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나의 대답

a. 파이퍼의 주장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리더의 죄를 따르지 안 따르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법이 정해지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품이나 인간적인 결함을 따르지 않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말: “나는 그의 트위터 글이나 성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가 국민들을 위해 좋은 법들과 정책들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그를 지지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자유가 있다. “트럼프가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LGBT를 강화하는 법들이 만들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케이크 장식하는 사람, “동성 결혼 용 케이크는 만들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옷을 갈아입는 라커룸에 남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여자라고 하며 내가 옷 갈아입는 것을 볼 때 나는 옷을 갈아입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성문화가 더 타락하고 자랑과 교만이 더 드러난 사례를 나는 내 눈으로 본적이 없다. 트럼프가 교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 교만하게 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트럼프가 과거에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나도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은 민주당, 공화당원들 모두 반대하고 싫어하는 일들이다. 이런 것들은 본받아야 할 모델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줄 때 쓰는 모델이다.

b. 정책과 법규들, 개인의 성품

후보자의 성품과 정책 둘 다 중요하다. 어떤 특별한 성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데 나는 동의한다. 예: 인종 차별 주의 등

그런데 선거장에 가면 대개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된다.

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각 후보의 정책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이번 선거가 그렇다.

c. 트럼프 지지자들의 문제

파이퍼는 트럼프를 지지하면 그의 죄들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 그의 부정한 과거 결혼 생활, 교만 등에 대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하나도 없다.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마음대로 바람 피워도 돼. 도 교만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를 지지하는 모든 목사들은 결코 그의 과거 행적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반대한다.

d. 나는 파이퍼보다는 더 트럼프의 성품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

사실 인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인물에 대해 빠르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조그만 정보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평가를 내리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더욱이 롬3:23, 모두 죄인이기에 더 어렵다. 모두가 결점을 가지고 있다.

파이퍼는 트럼프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만 언급한다. 언론에서는 대개 부정적인 것들만 공표하므로 트럼프에 대해 좋은 점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2016년에 나는 이렇게 썼다.

“트럼프는 자기중심적이고 무모하고 경솔하다. 무언가를 말할 때 직설적이다. 잘못된 생각을 불쑥 말하곤 한다. 사람들을 모욕한다. 자기를 공격하면 방어적이다. 세 번 결혼하였다. 신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이런 것들은 그의 결점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에 대한 비방 중 다수는 근거가 없다. 그는 오랫동안 사업을 했다, 그의 과거 경력을 보면 그는 인종 차별주의자가 아니다. 반이민 주의자도 아니다. 유대인 반대주의자도 아니다. 언론이 이런 것들을 이유도 없이 파급시킨다. 그는 애국자다. 미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 사업계에서 그는 항상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다. 그를 아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가 친절하고 사렘 깊으며 관대하다고 말한다.“

이 말을 한 뒤 4년이 지났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자기의 공약을 실천하였다. 악성 언론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에너지, 공식 연설에서 드러나 연설의 품위, 웅변 능력,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 대통령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과거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4년간 섹스 문제 없었다. 자랑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공을 칭찬하는 말도 많이 하였다. 여러 상황에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성숙함을 보여 주었다.

e. 트럼프 선택은 그의 여러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책을 편다.

바이든은 성격과 정책 모두 나쁘다.

트럼프를 이상적인 대통령과 비교한 뒤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가 안 되면 바이든이 된다. 그는 또 다른 성품의 문제와 정책의 문제를 안고 있다. 부통령 당시 권력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챙겼다(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그의 아들 문제, 가족들 문제

f. 트럼프 행정부에는 귀중한 사람들이 발탁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트럼프만 뽑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아주 유능한 크리스천 인재들이 발탁되었다. 내 평생에 이런 것은 처음 본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본이 된다. 트럼프를 찍는 것은 마이크 펜스, 마이크 폼페이오, 벤 카슨 등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끌고 가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다.

2. 그리스도인들이 정책과 법규들이 개인의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면 잘못된 것을 전달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a. 나 역시 개인의 성품이 그의 정책이나 법규보다 중요하다는 파이퍼의 생각에 동의한다.
- b. 그런데 선거 날이 와서 두 사람 가운데 하나를 뽑아야 하면,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명백한 결점이 있다면 결국 정책과 그가 만들 법들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한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는 나라를 이끌 리더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제시하는 정부, 정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 정부와 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3.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는 다른 죄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 예를 들어 낙태 지지 등. 그러므로 교만한 자를 뽑는 것은 간접적으로 낙태를 지지하는 것이다.

- a. 교만과 낙태는 큰 상관 관계가 없다. 낙태의 원인은 결혼 외 섹스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있다. 아이를 키울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즐기려는 욕망 때문에 생긴다. 낙태 시행 의사는 돈 때문에 하고 있다. 대통령이 교만하다고 해서 사회에서 낙태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4. 그러므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이 둘을 뽑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 a. 다수의 목사들이 파이퍼의 의견을 따른다면 바이든이 될 것이다.

크리스천들이 파이퍼의 의견대로 선거장에 가서 둘 다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바이든이 대승을 거둘 것이다. 2016년 선거,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80%가 트럼프 지지, 힐러리 16% 지지, 그러므로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나 바이든 둘 다를 찍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바이든이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을 뽑는 것이다. 그 뒤에는 사회주의(세금 증가 혹은 폭탄) 자유 섹스, LGBT, 섹스 스와핑, 종교의 자유 탄압 등이 기다리고 있다.

- b. 트럼프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긴다.

대법관들이 성실하게 법대로 판단한다. 자의적 해석 금지, 보수적 대법관 임명

낙태 시행 어렵다

성정환 수수 어렵다

경제 회복

정부 규모 축소, 세금 감소,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중공 압박 및 붕괴, 이스라엘 보호

종교적 자유 확대

이제 우리가 바이든을 선택하면 이와 정반대의 정책이 나올 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선택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파이퍼는 “이 문제에 대해 달리 생각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도 동일한 말을 하고 싶다.

나는 그의 인품, 강해, 용기 등을 칭찬하고 싶다. 그가 있어서 기쁘다.

추신: 마지막으로 나는 이것을 기사로 쓰기 전에 파이퍼에게 코멘트를 해 달라고 먼저 보냈다. 그러자 그는 자기에 대해 내가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자기의 좋은 친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말하려는 요점을 더 강하게 말하라고도 하였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파이퍼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이런 코멘트를 하였다고 나는 믿는다.

결론

투표장의 후보는 다 죄인들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그들의 외모, 성품 등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정책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가 안 뽑으면 중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이다.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다 고려하지 말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확고히 믿고 북한 중공 공산주의자들을 대적하며 국가 안보를 지키는 사람을
대통령, 국회의원 등으로 뽑아야 한다.